살아생전에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야 됩니다

☞ 19면에서 계속

도를 법회 때마다 와서 듣고 나니까 그 느끼는 감이 좀 더 다르고 조금 이해가 깊어지고, 그다음에는 '어쩌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괜찮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고서도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상당히 실망에 빠졌습니다. 이 주인공 공부라는 것이, 마음공부라는 것이 상당히 좋기도 한데, 제가 부지런하다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스님 설법하는 데는 꼭 빠지지 않고 나왔으니까 뭐, 영점짜리 신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게 뭐, 별로 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꼭 뭐가 딱히 안 된다고 꼬집어서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회 때마다 질문을 하시는 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는 며칠 만에 스님을 뵈었는데 꿈속에 스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지도를 해 주었고, 나는 이러한 경험을 해서 저렇게 했다' 하는 것을 들어 보면 사람들은 대단히 훌륭하고 마음공부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잘될 수 있도록 꾸중이라든가 채찍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내려 주셨으면 하고 나왔습니다.

큰스님 어떠한 스님네들이나 또는 스님이 아니더라도 꿈에 상상해서 좋은 꿈을 꾸었다, 부처님께서 나타나서 금강좌를 주는 꿈도 꿨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글씨를 써 가지고 깨쳤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빵 그림자 하나를 놓고 보는 것인데 그게 배가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겠습니까? 그림자 떡이 배가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겠습니까 하는 소립니다. 그러면 꿈에 무엇을 했다거나, 또 꿈에 나를 보았는데 내가 거들어 줬다고 했어도 그저 '아유, 감사하구나.' 이럭하고 그냥 놔야지, 그것이 좋아서 그냥 자꾸자꾸 꿈에 애착해서 따라가거나, 꿈의 형상을 보고 따라가거나 이런다면 아무리 해도 자기가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둘 아니게, 자기와 똑같이 둘 아니게 놓으라는 얘기죠. 아무리 좋은 거를 꿈에서 봤다 하더라도 '감사하구나.' 하고 거기다 놓고, 아무리 악한 걸 봤다 하더라도 '악한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나를 테스트해 보는 거로구나.' 하고 거기다 놓고, 이렇게 모든 걸 대치해 나간다면 그렇게 직코스로 가는 공부가 없는데, 이건 꿈에 그렇게 줬다고 그리로 따라가고 저리로 따라가다 보면 나중엔 허탈해질 거 아닙니까? 아무리 주인공을 찾아도, 이거 꿈에 보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자기가 실천을 해서 자유자재권을 얻어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함이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만이 그게 바로 자기 완성입니다.

그런데 자기완성을 하지도 못한 채 꿈을 좇아간다거나 꿈에 본 떡을 보고 배부르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망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도 '아,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옹호해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히 생각하고 거기다 놓으면 돼요. 거기에 좇아가질 말고 놔요. '집어 먹어 치워라' 이 소리예요. 부처님을 봤어도 즉시 집어 먹어 치우고요. 그러니까 내가 "둘 아니다" 이랬죠, 영! 영이 만약에 몇만 개다 할지라도 그것은 둘이 아닌 까닭에 일불(一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도와주는 꿈을 꾸었는데 그거를 좋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사실 언짢지도 않죠, 또. 좋게 생각을 해서 그저 '저 사람은 차원이 차차 높아져서 무의 세계에서도 저렇게 채찍질을 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 놔야지, 그걸 좇아가면 안 되죠. '내 중심에다 모든 걸 다 놔라' 이 소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게, 아까 뭐라 그랬죠? 허망하다고 그랬던가, 뭐….

질문자1(남) 예. 공부가 좀, 진전되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큰스님 이거 봐요. 주인공이 뿌리라면 지금 몸뚱이가 싹과 같은 건데, 싹과 뿌리가 항상 붙어 있는데 무슨 실망입니까, 실망이. 실망할 것도….

질문자1(남) 부와 자가 상봉하는 것이….

큰스님 상봉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걸 모르니까 그것도 방편으로 쓰는 말이지, 불성과 자기 육은 한데 붙어 있어요. 저 나무들의 뿌리가 싹하고 붙어 있듯이 그냥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데도 그런 줄 모르니까 같이 통과가 돼야 되겠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허망한 것도 아니니 이걸 허망하게 생각지 마세요. 그저 허망하고 허망치 않고 그런 거를 한 찰나에 싹 그냥, 둘 다 없애 버리세요.

질문자1(남) 예, 감사합니다. 마음공부를….

큰스님 그리고 외려 그렇게 된 거를 대견스럽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뿌리에서 내 싹을 푸르르게 살도록 과정을 거치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한다면 아마 꿈도 좋고 생시도 좋을 겁니다, 허허허.

(사회자를 향하여) 다 됐습니까?

사회자 한 분밖에 없습니다.

큰스님 왜요?

사회자 질문자가 없었습니다.

> 초발심시변정각이라 했습니다.
> 내가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 줄창 그대로 나간다면 그대로 각을 이루는 것입니다.

큰스님 그럼 내가 사월 초파일 말을 안 했으면 그냥 질문을 한 분만 하고 말았을 거예요? (대중 웃음)

질문이라는 게 별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어떠한 게 닥쳐올 때, 또는 닥치거나 안 닥치거나, 사람 살아나가는 도리에서 이것도 저것도 다 놓고 가는 도리가 어떠한 것인가 하고, 그러한 거를 이제 생활 속에서 의문 나는 대로 묻는 거죠. 생활이 '교(敎)'니까요, 그냥. 불성이 '불(佛)'이라고 하죠. 바로 인간의 생명의 근본이 '불'이에요. 그리고 우리 생활하는 게 '교'구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어느 종교라는 이름이 아니고, 진리라는 이름도 방편이지만 그냥 진리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머리 깎고 승복을 입은 이 방편도 우리 머리 깎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도리를 진실로 지켜 가면서 하기 위해서예요. (장삼을 가리키시며)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옷을 입는다, 아무리 껍데기라도. 그 껍데기를 입는 반면에 우리 마음이 정숙해져야 된다. (머리를 짚으시며) 이걸 무명초라 했으니 일체 만물이 다 소생이 되고 또 소생이 되고, 깎아도 소생이 되고 또 깎아도 또 소생이 되고 하니까, 끝이 없는 진리에 관한 건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머리를 깎은 겁니다.

부처님께서 사생자부가 되신 그 뜻을 생각할 때 '하나서부터 열까지 내가 아님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기까지 그걸 얼마나…. 그러니까 너의 부모가 따로 없다고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생자부이신 어버이신데 어찌 뼈 무더기에다가 절을 하십니까? 왜 하치못한 뼈 무더기에다 절을 하십니까?" 하니까 "진짜 사생자부라면, 미생물에서부터 수없이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거듭거듭 바꿔 가면서, 찰나찰나 화해서 이렇게 거듭거듭 바꿔서 나온 이 자체를 볼 때 어찌 내 부모 네 부모가 따로 따로 있으랴. 내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내 어머니가 될 수도 있으니 어찌 그냥 가랴." 그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사생자부가 될 수 있는 과정을 그냥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이거를 알아서 사생자부가 돼라.' 하신 거죠.

그냥 이름이 사생자부가 아니죠. 그렇게 사생자부의 과정을 거쳤으니까 사생자부가 된 거죠. 도솔천에서, 도솔천이라고 하는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시고 그 중심을 가리키시며) 돌아가는 이 중심에서, 과거가 아니라 찰나 전에 사실 때에 그렇게 보살행을 하셨기 때문에 찰나 후에 태어날 때는 '너는 석가로서 이름을 갖고 이 세상을 모두 건져라.' 하고서 내보내진 것이죠. 그러니까 찰나 전에 했던 것이 찰나 후에 안 닥쳐온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보세요, 다. 찰나 전에 했던 일인데 찰나 후에 이렇게 크게들 닥치는 거 보세요. 찰나 전에 좋다고 했는데 찰나 후에 이렇게 감옥에까지 가게끔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조그만 거든 큰 거든 다 그렇죠. 원리가 다 그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천 년 전이다 해도 찰나 전이고, 삼천 년 후다 해도 찰나 후예요. 지금 현재에도 그냥 찰나찰나 돌아가고 있구요. 그러니 뭐를 거기서 따지고 뭐를 가져야 한다, 이런다 저런다 할 게 있습니까? 그저 이, 도리천 세계 삼라만상 대우주 중심을, 우리가 중심에서 한마음이 돼서 오로지 자유스럽게 자유권을 얻어서 모두 나 하고 싶은 대로, 즉 말하자면 어디 길을 지나가다가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걸 억울하지 않게 대치를 해 주고 지나가고…. 누가 그랬는지도 알 수는 없겠지요. 그 사람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누가 그런 일을 그렇게 대치해 줬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까닭에 보살행이 아닙니까? 그게 연기법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무의 공법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열반의 경지에 들어야지 죽어서 열반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나 열반의 경지에 못 들었다 할지라도 '초발심시변정각'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줄창 그대로 나간다면 그대로 각입니다. 각을 이루는 겁니다. 허망한 생각 조금도 마시고 처음에 하려고 칼을 뺐으면 그게 바로 변정각입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같이 항상 도반이 되기를 바라면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마음으로 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생각을 했든 어떠한 생각이 나왔든, 꿈에 어떠한 꿈을 꾸었든 모든 걸 감사하게 그 자리에 놓고 살자 이 소립니다. 감사하게 놓을 거는 거기에 감사하게 놓고, 잘 안되고 살 수가 없을 때에는 '너만이 살릴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놓으세요. 그저 오직 한 구멍, 한자리 거기에다가만 그저 잘되는 것은 감사하게, 못되는 거는 '되게끔 하는 것도 너다.' 하고 감사하게 관하시도록 하고, 우리가 같은 한자리에서 일체 모든 거를 도반으로 여기고 산다면 아주 대단히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7년 5월 4일 법형제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